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3
----------	-----

2018년 11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8.27. 장상기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8.8.28.

다. 상정 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8년 11월 1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 원종~홍대입구, 16.3km)를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고시(' 16. 6월)한 바 있음.
- 서울시가 수행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 17.3월)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 부족으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기초 지차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구성(' 18.2월)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신속하고 원활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이 송 처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의 서부권과 부천시를 연계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입구)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라는 비전 아래 제6대 추진방향(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 이동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¹⁾을 발표하였음.
- 6대 추진방향 중 대도시권 교통난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확충을 위해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부평~경마공원),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등 신규사업 추진(참고자료.1)을 계획하였음.
 - 이 중 부천시 원종부터 서울시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원종홍대선은 총 연장 16.3Km, 총 사업비 2조 1,664억원의 신규 사업임.
- 그러나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6. 10 ~ ‘17. 3)을 통해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 부족으로 원종홍대선(이하 ‘서부지역 광역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1)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법정계획

제시한 바 있음.

-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강서구, 마포구, 부천시 공동용역('13. 12 ~ '14. 11) 당시 신정차량기지 활용 시 경제적 타당성($B/C=1.01$)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성 사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량기지 용량 부족으로 별도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기지 신설 시엔 사업비가 늘어나 사업성이 크게 악화($B/C=0.5\sim 0.7$)되는 것으로 분석됨.
-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서부권역의 개발 가속화와 간선철도 연계가 전무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편중 해소,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해서는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은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교통분담율(2012년 기준)이 강서구가 20.8%로서 서울시 평균 26.7%과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부천시는 15.1%에 불과하여 지하철 시설 확충에 따른 접근성, 편의성 향상 및 이용율 증대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서남권의 주요 동서축 간선도로의 소통현황을 보면, 특히 화곡로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각각 19.1km/h, 17.5km/h로 해당지역 도로정체가 심각한 수준임.
 - 이러한 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수단 도입 등을 통한 교통수단 이용수요의 전환이 반영된 개선방안이 요구됨.
- 이에 서울시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청라 노선(참고자료 1)을 추가하여 '광역철도(원종흥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 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가 시행 중에 있음.

- 당초 용역 결과가 '19. 2월 도출될 예정이었으나 용역 기간이 '19. 6월로 연장되는 등 서울 서부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요구와 국토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구체적 건설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도시안전건설),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고,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²⁾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별도 의견제출하지 않았으며,

교통위원회는 의회의 요구로 2018년 현재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다는 점에서 서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서부지역 광역철도 조속 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참고자료 4).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13
----------	-----

발의년월일 : 2018년 08월 27일

발 의 자 : 장상기, 우형찬, 박상구, 신정호,
채인묵, 김기덕, 최웅식, 이광호,
경만선, 최기찬, 이광성, 성흠제,
정진술, 황인구, 문장길, 오현정
의원(16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정부(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 원종~홍대입구, 16.3km)를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고시('16.6월)한 바 있음
- 서울시가 수행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17.3월)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 부족으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구성('18.2월)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신속하고 원활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부천시 원종부터 서울시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6.3km, 총 사업비 2조 1,664억원의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인 원종홍대선을 포함하였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원종홍대선은 신정차량기지 활용을 전제로 사업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가 수행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 부족으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차량기지를 신설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기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장기화 되거나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 의회의 요구로 2018년 현재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에 서부지역 서울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8.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